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오이코스 전도 대상자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골로새서 4장 3절]

NO	대상자명	관 계	구체적 전도방법	영적수준	비 고
1					
2					
3					
4					

수준1) 결신할 수 있음 수준2) 복음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3) 전도자에 대하여 열려 있음
수준4) 기독교에 대하여 알지만 부정적임 수준5) 기독교에 대하여 전혀 모름

가정교회를 위한 기도

“...너희 중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19절]

NO	성 명	기도제목
1		
2		
3		
4		
5		
6		

교회를 위한 기도

- 한 기흥 목사님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선교사님들의 GMI 사역과 건강, 가정을 위하여
- 교회와 사역/행사를 위하여
 - 4차 일천번제 특별 새벽기도회(1/22/2024~10/17/2026)
 - 신 천로역정(4/10~12)
 - 목자 부흥의 밤(4/28)
 - 성도양육과정 개강(4/29)

가정교회 보고서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가정교회 예배안 2026. 4. 12

4월 둘째 주: 부활의 증인들 (고린도전서 15:1-11)

■ Welcome

만약 당신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 중 하나를 직접 목격할 수 있는 ‘증인’이 된다면, 어떤 사건을 보고 싶으신가요? 또한 지난 주의 Grace Time을 통해 은혜 받은 것 중 하나를 나누어 봅시다.

■ 본문: 고린도전서 15:1~11

■ 서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근본이다. 기독교 신앙을 결정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부활하며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 부활의 소망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 그러나 만일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복음도, 구원도, 소망도 모두 헛된 것이 된다.

(고전15:14)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할 수 있는가?

부활은 단순한 신념이 아니라 증거 위에 세워진 사실이다. 어떤 사건의 진위를 판단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증인의 증언이다. 예수님의 부활도 은밀하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공개된 사건이며, 수많은 증인들이 목격한 역사적 사건이다. 바울은 이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말하고 있다.

■ 관찰 질문: 부활의 증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증언하였는가?

해답 1. 성경의 예언이 부활의 증인이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신 사건이다. (고전15:3-4)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만에 다시 살아나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분명히 밝힌다. 또 구약의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일관되게 예언하였다. 장차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실 한 분이 계시며, 그분이 곧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언한 것이다.

(사 53:5)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의 죽음을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대속의 죽음으로 설명한다. (시 22:16-18)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찢었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저희가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시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난 수족이 찢리는 죽음과 옷이 제비뽑히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이 예언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본다.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을 살펴본다. 이 말씀은 다윗을 넘어 메시아를 가리킨다.

(시16:10)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결국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이 모든 예언대로 죽으셨고 또한 예언대로 부활하셨다.

☼ 적용 질문 1

1) 구약의 예언(사 53장, 시 22편, 시 16편)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내 일상의 어떤 부분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해답 2.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고전15:5) “**게바(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 두 제자에게와**”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이 제자들의 증언에 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주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세 번 이상 분명히 말씀하셨다.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일어날 배신과 고난,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제삼 일의 부활까지 분명히 예고하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다(눅 18:34). 부활 이후에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전했을 때에도 제자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다.

(눅 24:10-11)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안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제자들은 의심과 불신 가운데 숨어 있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 차례 나타나시고, 이후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며,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증거한 증인들이다.

(행 4:19-20)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매질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복음을 전했고, 고난을 영광으로 여겼다. 만일 부활이 거짓이라면, 이와 같은 변화는 설명될 수 없다. 사람이 꾸며낸 거짓을 위해 목숨을 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가정교회 예배안

모든 성령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 적용 질문 2

1)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행 4:20)고 고백한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가 삶에서 담대하게 증언해야 할 부활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해답 3. 그 외 오백여 형제들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들이다.

(고전 15: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 외에도 약 오백 명의 증인이 있음을 밝힌다. 특히 이들은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을 함께 보고 듣고 교제한 자들이다.

(행 1:9)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는 당시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증거였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일부 개인이 경험한 환상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동일하게 목격한 역사적 사건이다.

☼ 적용 질문 3

1) 나는 내 주변의 오이코스(가족, 친구, 이웃)에게 “부활의 산 증인”으로 살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지 나누어 봅시다.

해답 4. 야고보와 사도 바울이 부활의 증인이다.

(고전15:7-8)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사역 당시에는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신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영적 권위를 가지고 공동체를 이끌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누구보다도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었다. 유대교 지도자로서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체포하던 자였다. 그러나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행 9:3~5).

(고전 15:9)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결국 야고보와 바울의 변화된 삶과 그들의 증언은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사건임을 강력하게 증명한다.

☼ 적용 질문 4

1) 예수를 믿지 않던 야고보와 교회를 핍박하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나의 삶에서 복음과 부활 신앙으로 인해 가장 크게 변화된 부분은 무엇입니까?